

## 해석이론의 특징과 한계

이 향  
(고려대)

### I. 들어가는 말

해석이론(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sup>1)</sup>은 파리통번역대학원(ESIT)<sup>2)</sup>의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론으로, 의미(sense)의 이해를 통번역 과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이론’(theory of sense), 혹은 ‘의미통번역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해석이론은 그 주요이론서가 국내에도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sup>3)</sup>, 프랑스어권의 어문학 전공자들, 혹은 ESIT에서 수학한 일군의 학

1)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론을 ‘Interpretative Theory’로 옮기기도 하나, 파리스쿨의 핵심 멤버인 Lederer(1999)가 ‘interpretive’로 옮기므로 여기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2) E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3) 해석이론 관련 주요 역서로는 『번역의 오늘』(Lederer, M., *La traduction aujourd’hui*, 2001.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국제회의통역에의 초대』(Seleskovitch, D. 2002.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정호정 옮김, 한국문화사) 등을 들 수 있다.

자들에 의해 국내 번역학계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sup>4)</sup>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해석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략적인 방식으로나마 프랑스의 주요 번역담론 중 하나인 해석이론가들의 목소리를 소개함으로써 영미권의 번역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번역학계에 나름의 학문적 기여를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통번역 행위를 전적으로 언어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언어학적 개념들을 통하여 통번역을 온전히 설명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1970년대의 상황에서, 통번역 행위는 단순히 텍스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으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해석이론이 번역학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해석이론이 국내에 ‘수입’되고 소개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해석이론은 통역실무를 토대로 통역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성찰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이후 실용번역, 문학번역으로 그 적용영역을 확장한 이론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석이론이 가지는 이러한 ‘통역이론’으로서의 뿌리는 종종 간과된 채, 거의 전적으로 번역이론으로만 언급, 인용,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박두운(1989)은 「번역의 해석이론」이라는 제목 하에 아예 처음부터 해석이론의 적용영역을 번역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이은숙(2007) 역시 해석이론의 문학번역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해석이론가들은 해석이론이야말로 통역이나 실용번역, 혹은 문학번역 등 특정 분야의 설명에 국한되지 않는 이론이며, 모든 유형, 모든 장르의 통번역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전적으로 해석이론의 국내 수용 차원에서 볼 때, 통역이론으로 출발한 해석이론이 과연 실용번역이나 문학번역에도 적용 가능한 ‘종합적’ 이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나 반성의 과정 없이, 통역이론으로서의 뿌리는 잊혀진 채 번역이론으로 성급하게 수용되어 버린

4) 국내에서 해석이론을 다룬 논문들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Lederer, M. 1999.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 A brief survey”,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창간호: 15-28.

이은숙. 2007. 「해석이론과 등가에 관한 연구」, 번역학 연구 8(1), 245-261.

박두운. 1989. 「번역의 해석이론」, 불어불문학 5, 33-48.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석이론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며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다른 학자들, 특히 프랑스어권의 어문학 전공자들 중 번역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석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이미 국내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석이론의 핵심적 개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되, 그 이론적 출발 및 성장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해석이론이 종합적 통번역이론으로서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지는가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 II. 해석이론의 주요 개념 및 의의

오늘날 번역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기타 통번역 이론들과 비교해 볼 때, 해석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통역의 실무를 이론화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번역의 영역으로 확장된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는 점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국내 연구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는 사실로, 비록 해석이론의 창시자인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나 레더러(Lederer)가 국제회의 통역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이론화하여 해석이론을 탄생시켰다는 점이 형식적으로는 언급되기는 하나, 이 점이 해석이론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간과하거나 함구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번역학계의 주요 담론들은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주로 번역(written translation)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번역 중에서도 성경번역, 문학번역, 실용번역 등 특정분야의 번역을 그 뿌리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나이다(Nida 1964)의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개념은 성경번역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며, 텔아비브(Tel Aviv) 학파의 투리(Toury 1995)를 위시로 한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은 주로 문학번역의 영역을 성찰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확장과정에서 대두된 이데올로기, 포스트식민주의 담론 등 역시 그 성찰의 영역을 주로 번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스타이너(Steiner 1975)의 ‘해석학적 운동’(hermeneutic

motion)이나 베누티(Venuti 1998)의 이국화(foreignization) 역시 활자화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타이너의 경우는 주로 시공간을 달리 하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운동에, 베누티의 경우는 ‘해계모니적 언어에 맞서는 잔여적 언어를 통한 저항으로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번역학 내부에서 통역과 번역을 모두 아우르며 소위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임을 스스로 표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역학의 영역에서 해석이론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론으로 흔히 독일의 스키포스 이론 및 통번역 행위론을 포괄하는 일반 통번역론을 꼽는다(정혜연 2008: 42). 통번역을 공히 하나의 목적(skopos)을 가진 행위(action)로, 통번역사를 그러한 행위의 전문가로 정의하는 독일의 일반 통번역론은 통번역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일반적 이론을 자처하고 있으나, 그 이론적 뿌리는 역시 번역 연구이다.<sup>5)</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이론의 출발은 분명 남다른 데가 있으며 특히 통역학사적 차원에서 해석이론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해석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셀레스코비치의 「회의통역」(L'interprétation de conférence)<sup>6)</sup>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된 1962년 당시만 해도 순차통역이나 동시통역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통역을 단순한 부호전환(transcoding) 작업으로 간주하고, 이론적 논의는 주로 문학영역에서 진행되는 문학작품의 번역 관련 담론, 혹은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나 설명이 주도하고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통역의 과정을 통역사에 의한 인지적이고 해석적 작업(interpretive process)으로 설명하는 해석이론은 그 시도 자체가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sup>6)</sup> 실무 현장에서

5) 스키포스 이론의 창시자인 Vermeer의 연구, Reiss의 텍스트유형론 등은 통역에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번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6) 물론 여기서의 ‘해석’은 ‘해석학’(hermeneutics)에서 말하는 해석이나, 자의적 이해와 표현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통역사들이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통역만 하라’는 주문에 당황하는가? Seleskovitch & Lederer가 1993년 펴낸 저서의 제목 『통번역을 위한 해석하기 *Interpréter pour traduire*』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통역행위는 기계처럼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통역사가 자신의 인지적 지식을 주어진 발화에 적극적으로 융합시켜 의미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은 해석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전문통역사로서 축적한 통역경험을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수하고자 했던 셸레스코비치의 접근은 당연히 기존의 언어학이 사변적,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접근했던 부분, 즉 ‘실제 통역의 과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통역교육’ 일 수밖에 없었다.

해석이론가들은 통번역의 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설명한다.

첫째는 이해(comprehension)의 단계이다. 통역이나 번역의 대상은 주어진 텍스트(여기서는 구어 형태의 발화도 포함)를 이루고 있는 언어적 요소가 아닌, 그 해당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sense)이다. 통(번)역사는 자신의 체험, 언어적 지식, 스스로의 성찰 등을 통해 얻어진 인지적 축적물(cognitive baggage)을 동원하여 주어진 텍스트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해석이론의 핵심적 개념을 이루는 탈언어화(deverbalization)의 단계이다. 탈언어화는 텍스트의 이해와 이해된 내용의 재표현 단계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통번역사는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적 요소들에 의지해야 하지만, 일단 의미가 도출되고 나면 단어들은 사라지고 ‘비언어적’(non-verbal) 상태인 의미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도출의 과정을 탈언어화 과정이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재표현(reformulation)의 단계로, 앞서 탈언어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의미를 최대한 도착어에 맞게 표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석이론가들은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유(synecdoche)의 차이를 통하여 설명하며, 언어마다 동일한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을 감안하여, 담화 차원에서도 수용언어의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표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7)</sup>

해석이론가들이 제안한 개념들은 통번역을 언어현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사변적 언어학 개념들이 설명해 내지 못한 실제 통역의 과정을 적확하게 설명해 내는 훌륭한 개념적 도구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석이론이 특히 통번역 실무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실무 경험 외에 별도의 준비 없

7) 후에 Jean Delisle은 여기에 번역사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검토하는 검증(verification)의 단계를 추가한다.

이 통번역 교육현장에 투입되곤 하는 통번역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III. 해석이론 확장의 3단계

문제는 통역이론으로 출발한 해석이론이 점차 실용번역, 문학번역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해석이론의 확장의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1단계는 통역이론으로서의 출발단계이다. 이는 국제회의 통역사였던 셀레스코비치가 자신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통역교육을 시작한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석이론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지만, 셀레스코비치는 이미 1960년대부터이다(Lederer 2006). 그러나 셀레스코비치는 통역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내적 확신들을 수차례 교육현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었으며, 1970년 초부터 해석이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들을 논문 형태로 발표하기 시작한다.<sup>8)</sup>

해석이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74년 ESIT에 박사과정<sup>9)</sup>이 개설되면서부터이다. 해석이론의 제2기라 볼 수 있는 1970년대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해석이론을 통역이 아닌 번역 영역에 적용한 일련의 학위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바야흐로 통역이론이었던 해석이론이 ‘통번역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다. 특히 ESIT에서 1978년 『번역방법으로서의 담화분석』(*Analyse du discours comme méthode de traduction*)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캐나다의 번역학자 들릴(Delisle)은 동 제목의 저서를 1980년 출간하면서, 비네&다블네(Vinay & Darbelnet)의 『영불비교문체론』(*Stylistique comparée du fran aise et de l'anglais*)으로 대표되는 해석이론 이전의 비교언어학적 접근에 반기를 들

8) 이 시기에 발표된 주요 저서로는 『국제회의 통역사, 언어와 소통의 문제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를 들 수 있다.(Minard Lettres Modernes)

9) ESIT의 박사과정은 처음에는 통역과 번역과학(science de l'interprétation et de la traduction)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으나 이후 번역학(traductologie)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Ballard ed. 2006 42)

고, 해석이론을 번역이론으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듀리외(Durieux)<sup>10)</sup>는 해석이론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번역교육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역시 번역이론으로서의 해석이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다룬 번역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실용적, 기술적 성격의 번역이었으며 문학번역은 여전히 배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제2단계까지의 해석이론은 통역의 영역과 번역영역의 일부, 즉 문학번역을 제외한 실용, 전문번역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레더러는 1990년에 발표된 이스라엘(Israël)의 논문<sup>11)</sup>을 해석이론의 문학이론으로의 확장의 출발점으로 회고한다(Lederer 2006 43). 따라서 해석이론 확장의 세 번째 단계, 즉 문학번역의 포용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이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스라엘(1990)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 실용적, 기술적 텍스트의 영역에서] 의미이론이 도출한 통찰력 있는 결론들이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아니면 문학의 영역은 그 특성상 별도의 문제들에 속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때이다.

(...) il reste à déterminer si les conclusions pénétrantes de la théorie du sens dans le secteur exploré peuvent être étendues au transfert de l'objet littéraire ou bien si ce dernier relève, en raison de sa spécificité, d'une autre problématique (Israël 30).

이스라엘은 이 글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별개의 분야로 간주되었던 문학번역을 해석이론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문

10) Durieux는 1984년 ESIT에서 『전문번역의 교육적 토대』(*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8년 동 제목의 저서를 출판한다. (Didier Erudition, Paris). 국내에서는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 소개되었다. (박시현, 이향 옮김, 2003. 고려대학교 출판부).

11) 이 논문의 제목은 문학번역과 의미이론 (*Traduction littéraire et théorie du sens*)으로, 1990년 『번역연구』(*Etudes traductologiques*)라는 제목으로 ESIT 출신의 해석이론가들이 셀레스코비치에게 헌정하는 논문집에 실려 있다(pp. 29-43, Minard). 이 논문집에는 Pergnier, Delisle, Cormier, Durieux, Bastin 등의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학텍스트가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순수한 창작물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문학텍스트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단지, 문학텍스트가 독자와 이루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은 화자, 청자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예를 들어 국제회의 통역)과 달리, 텍스트의 저자와 독자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느 한쪽이 부재하는 경우도 있는 특수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학텍스트의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은 실용텍스트의 의미도출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두 텍스트에서 ‘의미’가 가지는 성격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한다. 문학적, 미학적 텍스트에서는 그 어느 텍스트에서보다 ‘형식’이 의미형성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학적 텍스트에서는 소위 언어적인 ‘형식’을 번역해야 하는가? 이는 ‘의미’를 번역하고자 하는 해석이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은 주어진 문학텍스트에서 해당 형식이 수행하는 ‘기능’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문학텍스트의 경우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번역과정을 제안한다.

우선은 언어적인 제약, 저자에게 고유한 것들, 저자의 개인어들을 가려낸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특징들이 확인된 후에는 이들이 전체 번역기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해 낸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착어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적 표현들과 문화 속에서 원문에서와 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의미-형태 관계를 복원해 내기에 적절한 요소들을 발견해 낸다.

Il convient tout d'abord d'isoler des contraintes de la langue, ce qui est propre à l'auteur, son idiolecte, (...)

Puis une fois cernées ces idiosyncrasies, il s'agit de définir leur rôle dans l'économie du projet. Enfin la troisième phase de la démarche consiste à repérer dans l'idiome et la culture d'accueil toutes les ressources propres à l'instauration d'un rapport sens-forme susceptible d'engendrer le même effet. (Israël 41).

결국 문학텍스트의 원 저자가 특정한 언어형태를 통해 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원문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파악한 후, 도착



어 속에서 그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즈라엘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다수의 해석이론가들이 해석이론을 문학번역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앙리(Henri)는 자신의 논문에서 문학번역의 영역에서 뿌리깊게 남아있는 ‘직역’의 전통을 비난하며, 필요한 경우 도착어 독자에 맞는 과감한 재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원 텍스트와 등가를 이루는 도착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앙리는 해석이론의 원칙이 문학번역에 적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문학번역 역시 실용번역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단언한다(Henri 159).

#### IV. 해석이론의 기저: 통번역에 대한 보편주의적 입장

해석이론가들이 위의 단계들을 거쳐 그 이론을 확장하고 스스로를 통역, 실용번역, 문학번역의 영역을 모두 설명하는 포괄적 이론으로 표방한 것은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해석이론의 근본적 전제를 의미심장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입장표명으로 보인다. 해석이론가들은 통역과 번역을 근원적으로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이해한다. 통역과 실용번역, 문학번역은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이며 같은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훌륭한 번역사의 접근방식은 언어나 텍스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번역(통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La démarche du bon traducteur est fondamentalement la même, quelles que soient les langues et quel que soit le texte en cause. La recherche du sens et sa réexpression sont le dénominateur commun à toutes les traductions. (Lederer 1994 9).

따라서 해석이론가들은 통역과 번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론의 존재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통역과 번역

의 공통분모에 집중하는 이론적 성향은 거의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 탄생한 스코포스 이론가들의 지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독일의 스코포스 이론 및 행위이론가들 역시 통번역이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며, 통번역 행위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타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2)</sup>. 이들은 통역과 번역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통번역’(translat) 개념까지 만들어내었으며, 각종 통번역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종합적 이론을 지향한다(정혜연 2008 58).

‘종합적’이든, ‘일반적’이든, ‘포괄적’이든, 이러한 명칭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통역과 번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특징들에 주목하며 이를 동일한 개념틀로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를 소위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번역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역과 번역의 공통분모에 집중하고 기본적으로 통번역을 동일한 메커니즘에 따른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선택할 경우, 특정 언어, 특정 문화, 특정 유형의 통역 혹은 번역이 가지는 특수성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통번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 지향으로 삼게 된다. 해석이론은 명백히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의역주의자’라는 모호한 명칭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들을 규정짓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V. 반(反)보편주의적, 혹은 개별주의적 입장

그런데 이러한 보편주의적 입장에 대한 우려나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역과 번역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성급하게 이들 간의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언어와 문화권,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통

12) 기능주의자들은 다른 각도에서는 ‘문화상대주의’, 혹은 ‘문화에 대한 반보편주의’로 읽힌다. 이는 개별 문화의 독특함을 중시하고 문화에 따라 번역작업에도 ‘변형’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본고에서 다루는 통역과 번역 간의 공통분모에 대한 이들의 ‘보편주의적 입장’과는 별개의 것이다.

역, 번역이 가지는 특수성에 좀 더 천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통번역을 한데 묶어 설명하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번역 내부에서도 텍스트의 성격이나 기능, 언어쌍 등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개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번역 행위의 ‘다원성’과 ‘통합불가능성’을 옹호하는 베르만(Berman)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편주의적] 담론들은 시, 연극, 문학적 산문, 철학, 기술적 번역이나 법률적 번역, 먼 언어나 가까운 언어, 현용어(現用語)나 사어, 구어나 문어, 공통어나 방언, 초역이나 재번역, 언어간 번역이나 언어내 번역에 상관없이 번역행위를 설명해주는 포괄적이고 유일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번역의 공간이 극도로 다원적이고 혼질적이며 통합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강조는 필자).

Car ces discours se fondent sur la présupposition que l'on peut édifier *une théorie globale et unique du traduire*, qu'il s'agisse de poésie, de théâtre, de prose littéraire, de philosophie, de textes techniques ou juridiques, de langues proches ou lointaines, vivantes ou mortes, orales ou écrites, communes ou dialectales, de premières traductions ou de retraductions, d'hétéro-traductions ou d'auto-traductions, etc. Elles négligent le fait que l'espace de la traduction est irrémédiablement pluriel, hétérogène et non unifiable. (Berman 1989 674)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베르만은 통역과 번역행위를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이론과는 명백히 다른 입장에서 있으며, 번역행위의 다원적이고 혼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3)</sup> 뒤이어 베르만은 ‘과학성’을 담보하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일련의 보편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 cela signifie-t-il que l'on puisse faire tenir dans un concept unique –

1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르만과 해석이론은 직역주의 vs 의역주의의 개념보다는 개별주의 vs 보편주의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sous prétexte de ‘scientificité’—tous les modes de traduction? Et si l’on parvient à le faire, sur quelle base? A quel prix? (Berman 1989 674).

그렇다면 하나의 유일한 개념으로—‘과학성’이라는 미명하에—모든 번역의 양식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토대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성급한 보편화가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VI. 생각해 볼 문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제안하고, 번역학의 영역을 구획한 홈즈(Homes)의 번역학 도해(Map)는 당시 번역연구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미래의 번역학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어쨌든 홈즈의 도해는 이후 투리(Toury)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도해에서는 번역학을 크게 순수번역학과 응용번역학으로 대별하고, 통역은 순수번역학 중에서도 이론중심 번역학, 그 중에서도 부분적 이론 중 ‘특정매체이론(medium-restricted theories)’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1998년 출판된 『번역학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aedia of Translation Studies*)에서 모나 베이커(Mona Baker)는 번역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문학번역, 비문학번역, 다양한 유형의 통역 뿐 아니라 더빙, 자막번역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번역을 연구하는 학문.

Academic discipline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ranslation at large, including literary and non-literary translation, various forms of oral interpreting, as well as dubbing and subtitling. (Baker 1998 277).

홈즈와 베이커는 분명 번역학의 영역에서 통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의 연구가 ‘통역과 번역’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번역학계의 지배적 담론들은 대부분 번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의 기능주의 번역이론, 텔아비브 학파의 기술적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및 그에서 파생된 조작이론(manipulation theory)뿐 아니라 할리데이(Halliday)의 담화분석을 출발점으로 하여 진행된 하티무와 메이슨(Hatim & Mason)의 연구들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들이 향후에 그 이론적 발전 경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번역의 영역에 그대로 머무르며 번역이론으로 남는 것이며, 두 번째는 통역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통역과 번역을 포괄하는 이론을 표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편주의적 입장으로 명명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의 경우, 즉 번역의 영역만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이론들을 ‘개별주의적 입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번역이론들이 그 적용 영역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 장르의 번역, 혹은 특정 유형의 번역에 관한 담론도 스스로의 영역을 제한하기보다는 번역에 대한 일반론을 자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호함은 해석이론이 탄생, 전개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1972년 캐나다의 브라이언 해리스(Brian Harris)가 처음 사용한 후 일반화된 ‘번역학’(traductologie)이라는 명칭은 영어의 translation studies 개념과 마찬가지로 저자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ESIT의 경우는 ‘통번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traductologie를 정의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이나, 다른 학자들의 경우 traductologie는 주로 번역의 영역에 한정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통역과 번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통번역이론은 가능한가? 그리고 해석이론은 통역과 번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통번역 이론인가?

필자는 기본적으로 해석이론이 견지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입장에 성급하게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해석이론, 더 넓게는 보편주의적 입장이 가지는 맹점이나 함정들에 주목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석이론은 무엇보다도 ‘실무’, 혹은 ‘실무의 경험’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레더러는 심지어 번역학에서의 이론이란 ‘실무의 설명(explication de la pratique)’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Lederer 1998 17). 통역 실무를 토대로 이론을 체계화한 해석이론가다운 대답이다. 그런데 레더러의 말대로 실천을 설명하는 것이 이론이라면, 서로 다른 실천에 기반하고 있는 통역과 번역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기에는 통역의 실천과 번역의 실천 간에 지나치게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말’과 ‘글’이라는 거대한 차이, ‘순간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통역과 ‘끝없는 다시읽기’에 노출되는 번역 간의 차이 등의 본원적 차이 이외에도 번역의 경우 문학번역과 실용번역 사이에 역시 통역과 번역 사이에서 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차이들에 관하여 충분한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개념’, 혹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다양한 통번역의 형태들 간의 차이들을 축소, 혹은 삭제하는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묻는 베르만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해석이론의 문학번역에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해석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 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석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스코포스 이론가들에게도 가해졌던 비판으로, 기능주의 번역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목적성’개념이 문학번역의 영역에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비판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노드(Nord)는 이를 ‘기능 플러스 책임성’(function plus loyalty) 개념으로 방어하고 있다(2007 212). 그러나 스코포스 개념을 문학번역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인식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해석이론가들은 주로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을 통하여 해석이론이 문학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레더러(1994)의 경우 본문에서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Cannery Row*를, 부록에서는 아트 버크월드(Art Buchwald)의 *The woman behind the woman*을 번역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즈라엘 역시 『폭풍의 언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앙리 역시 잭 런던(Jack London)의 소설과 그 불역본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듯 해석이론의 문학번역에의 적용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해석이론가들이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선택하였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소설 = 문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특정 소설유형의 번역과정에서 이해-의미도출-재표현의 과정이 일반번역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해석이론이 문학번역에 적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통역이나 실용번역을 대상으로 성립된 이론을 문학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확장하려 함으로써 해석이론가들은 스코포스 이론가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해석이론가들이나 스코포스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주의적 이론’에 대한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VII. 나오는 말

번역학이 독립적인 탐구 영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며, 따라서 번역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긴 역사와는 별개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번역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더구나 번역학의 학문적 성립 초기에는, 혹은 문화권에 따라서는 극히 최근까지도, 번역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파편적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오랫동안 번역연구의 장은 문학번역 연구가 주도하였으며, 문학 영역 내부에서 장르별로 별도의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통역이나 실용번역이 학문적 성찰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는 통번역 연구의 장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통역, 번역전문가들이 연구의 장에 참여하면서 기존 이론이 간과하거나 오해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론적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이론이 번역학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기존 담론에서 종종 간과된, 통역과 실용번역, 그리고 뒤이어 문학번역 행위가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담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요소들에 주목함으로써, 통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가는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 번역사의 인지적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소통 작업임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해석

이론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관점이 통역이나 번역행위가 가지는 보편적 요소를 넘어서서 개별 행위들이 가지는 독특함과 고유함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종종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통역과 번역 현상은 극도로 복잡다단하다. ‘통역’의 내부에도 동시통역, 순차통역,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 법정통역, 수화 등의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학번역의 영역에도 시, 소설, 영상물 등등의 다양한 유형의 하위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개별 영역들이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된다고 단언할 만큼 충분한 연구와 성찰이 누적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보편주의적 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오히려 구체적, 개별적 연구를 방해하면서 우리를 통번역에 대한 일반적, 거시적 담론에만 가두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성급하게 하나의 이론틀 속에 모든 것을 밀어 넣기 전에, 통역, 혹은 문학번역, 실용번역이라는 제목 하에 대분류되어 있는 하위그룹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레더러의 말대로 ‘실무에 대한 설명’이 이론이라면 보편주의든 개별주의든 각 진영의 이론적 입장이나 원칙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나오게 된 뿌리인 실무 환경의 다양성과 혼질성에 기반을 둔 이론적 관심과 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 참고 문헌

- 박두운. 1989. 「번역의 해석이론」. 『불어불문학』 5: 33-48.
- 이은숙. 2007. 「해석이론과 평가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8(1):245-261.
- 정혜연. 2008. 『통역학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시현, 이향 옮김. 2003.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Durieux, C. 1988.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Didier Erudition).
-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Hachette)
- 정호정 옮김. 2002. 『국제회의통역에의 초대』 한국문화사. (Seleskovitch, D. 1968.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nece*. Minard)
- 정연일,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Nord, C. 1997. *Translation as purposeful activity*. Saint Jerome)
- Baker, M. (Ed.). 1998. *Routledge Encyclopeadia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utledge
- Ballard, M. 2006.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Paris: Artois Presses Université.
- Berman, A.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34(4):672-679.
- Delisle, J. 1980. *L'analyse du discours comme méthode de traduction: Initiation à la traduction fran aise de textes pragmatiques anglais*. Ottawa;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Ottawa.
- Nida, E. A.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J. Brill,
- Henry, J. 2005. “L'applicabilité de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à la traduction littéraire”, In F. Israël & M. Lederer (Eds.)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III De la formation à la pratique profesisonnelle*. 159-172.
- Holmes, J. 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In L. Venuti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172-185.
- Israël, F. 1990. “Traduction littéraire et théorie du sens”, In M. Lederer, M. (Ed.) *Etudes traductologiques*, Paris: Minard, 29-43.
-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Hachette.
- \_\_\_\_\_. 1998. “La place de la théorie dans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et de l'interprétation”. In Israel, F. (Ed.) *Quelle formation pour le traducteur de l'an 2000?: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tenu à l'ESIT les 6, 7, 8 juin 1996*, Didier Erudition, 17-37.
- \_\_\_\_\_. 1999.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 A brief survey”, 『국제

회의 통역과 번역』 창간호:15-28.

- \_\_\_\_\_. 2006. “La théorie interprétative de la traduction; origine et evolution”,  
In M. Ballard(Ed.)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Artois Presses  
Universite.
- Seleskovitch, D. & Lederer, M. 1993. *Interpréter pour traduire*. Paris: Didier  
Erudition.
- Snell-Hornby, M. 1988/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John  
benjamins.
- Steiner, G. [1975], [1988], 1998. *After Babel*.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nuti, L.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Routeldge.
- Vinay, J. P. & Darbelnet, J. 1958.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 ais et de  
l'anglais*. Montreal/Paris: Beauchemin/Didier.

[Abstract]

**Main concepts and limits of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Lee, Hyang

(Korea University, French Department, BK 21 project team)

The Interpretive Theory, developed to identify the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translation as a communicative ac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But the fact that this theory was originally formulated to elucidate the processes involved in oral interpreting by professional interpreters, is too often neglected. Instead, the theory is too often valued, without solid theoretical foundation, as a ‘global theory of translation’, which can explain not only oral interpreting but also pragmatic and literal translation processes. This paper analyses the main concepts and arguments offered by Interpretive theorists and examines its general applicability to literary translation. It also calls into question the validity of their ambition to explain all forms of translation within one theoretical framework and warns against the dangers of such a ‘universalist’ approach.

It finally reaches to the conclusion tha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peculiarities of each field of translation (oral interpreting, pragmatic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etc),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the ‘differences and uniqueness’ in various types of translating acts.

▶ Key Words: interpretive theory, Paris school, theory of sense, deverbalization, literary translation, Berman.

이향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BK21 번역비평가양성사업단

hc612@hanafos.com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철학, 프랑스번역사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